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족교육사업 비교분석을 통한 사업방향 탐색 연구

신 유 경(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문 선 경(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장 진 경(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족교육사업의 내용을 각 기관별 현황을 바탕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가족문제해결의 예방적 기지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사업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중 권역별 비례할당표집을 통해 각 25개씩 총 50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각 25개 기관(총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가족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한 인터넷자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및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편찬한 기능정립보고서, 프로그램 현황보고서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 각 기관별 가족교육사업의 법적근거, 운영 그리고 특화사업의 현황 등을 비교분석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교육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32조 건강가정교육에 근거하여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등이 일괄적으로 진행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법적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교육사업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2009)에서 제시한 가족기능강화 및 교육·문화에 따른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역할교육 및 관계훈련과 아동·청소년 사회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둘째, 가족교육사업의 운영 면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통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각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사업이 운영되고 있었다. 즉 교육프로그램의 메뉴얼화와 평가지침을 반영한 공통필수사업의 지정은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가정이라는 공통적·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특정대상(요보호, 신소외계층 등)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사업이 운영되고 있었다. 셋째, 가족교육사업의 기관별 특화사업의 현황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대상별 특화사업으로 노인, 아동, 청소년 등으로 분류하여 전문화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사업은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체계별 특화사업으로 예비부부, 신혼기 부부, 청소년기 가족생활교육, 중년기가족생활교육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전문화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일반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별 요구과약을 통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사업과 사례관리로 인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자원연계적 가족교육사업은 각각의 독특한 역할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파악하게 한다. 즉 일반가족의 체계별 관계강화와 건강성증진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사업은 예방적 성격을 갖는 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대상별 요구에 집중하여 실시되는 보완적 성격의 가족교육사업을 운영한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공통적 사업전개를 더욱 강화하여 역할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사업구상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대상의 요구에 집중하지 않고 보편적·일반적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일반가족의 요구를 포괄할 수 있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중복사업은 점차 감소(減衰)될 수 있을 것이다.